

“따뜻한 짜장 한 그릇에 ‘사랑·나눔의 정’ 느껴요”

북구 ‘2025년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마지막 봉사

올해 오치 등 6개 동 순회 20회 진행...6000인분 제공
자원봉사자 등 600명 참여...내년 3월 운영 재개 예정

“불경기로 짜장면 한 그릇 사먹기도 부담스러운데 이럴때 손수 챙겨주니 고맙네요.”

5일 오전 11시, 광주 북구 두암주공아파트 2단지.

제법 찬바람이 부는 오전 시간이지만 공원 앞에는 짜장면 한 그릇을 먹으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날은 ‘2025년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열리는 올해 마지막 날이다.

(사)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고 주관하고 IBK기업은행,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등이 후원한 ‘사랑의 밥차’는 2013년부터 결식 우려 이웃에게 따뜻한 식사 한끼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4월2일 오치2동

(주공1단지)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산, 일곡, 각화, 두암, 양산 등 6개동을 순회하며 회당 400인분의 점심을 제공했다.

올해 20차례 진행된 사랑의 밥차를 통해 6000인분의 육개장, 짜장면 등 따뜻한 식사가 제공됐고, 차량 운행부터 조리·배식·뒷정리까지 함께한 봉사자만 600여명에 달한다.

이날 현장에는 (사)대창한마음회, 북구녹색어머니회, 어울림사랑나눔봉사회, 에움아리 등 40여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날 일찌감치 모여 음식 준비와 탁자·의자 세팅, 배식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들의 정성 어린 움직임은 하루 전부



5일 광주 북구 두암주공아파트 2단지 일원에서 ‘2025년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운영됐다.

터 시작된다.

전날 오전부터 북구 각화동공판장과 대형마트를 돌며 신선한 양파·당근·양배추 등 제철 채소를 고르고, 지방이 적당히 섞인 국내산 돼지고기를 손질한다. 마트별로 단가를 비교하고 장터 상인들과 흥정하며 값과 품질을 동시에 챙긴다.

짜장 소스를 만드는 과정에도 진심이 담긴다.

커다란 솥에 기름을 두르고 잘게 썬 양

파와 대파 등을 볶은 뒤 돼지고기를 넣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잘 저어준다.

육즙이 채소에 스며들 즈음 춘장을 넣어 약불에서 오래 볶으면, 윤기 도는 짜장 소스가 완성된다. 고소한 짜장 향이 퍼질 때마다 “냄새만 맡아도 배가 고프다”는 봉사자들의 웃음소리가 현장을 덮는다.

최근 외식물가 급등으로 서민 음식인 짜장면조자 8000원을 웃도는 현실 속에서, 홀로 식사하는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이

한 끼는 그 자체로 반가운 선물이다.

배식이 시작되자 자원봉사자들은 갓 볶은 짜장면과 김치, 단무지를 정성스레 담아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짜장면 한 그릇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다.

뜻밖의 사연도 있었다. 지난달 29일 양산호수공원에서 진행된 ‘사랑의 밥차’에서 한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하자, 현장에 있던 봉사자와 경찰이 즉시 나서 1시간 만에 휴대폰을 되찾아줬다. 봉사 현장이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주민들의 불편까지 함께 챙기는 ‘이웃 상생의 공간’이 되는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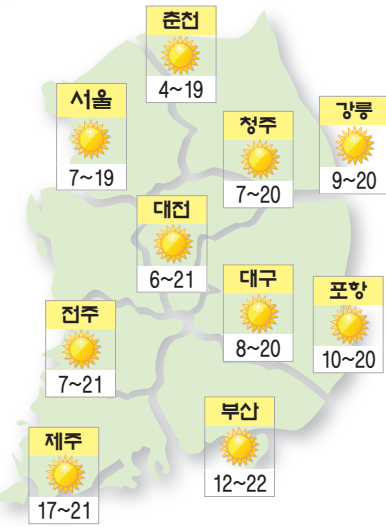
북구자원봉사센터 관계자는 “물가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어르신들에게 짜장면을 준비했다”며 “남은 음식은 장애인복지기관 등에 전달해 나눔 의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에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해 결식 우려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사랑의 밥차’는 내년 3월경에 다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	예보	06:58	달달	17:47
☁️	예보	17:34	달달	07:38



광주	☀️	8~21
목포	☀️	9~19
여수	☀️	12~20
순천	☀️	9~22
구례	☀️	7~22
광주	☀️	6~21
◡	☀️	10~22
진남	☀️	14~18
◡	☀️	8~22
◡	☀️	10~22

목포	일출(고)	02:00 / 14:43
	셋물(저)	07:22 / 19:58
여수	일출(고)	09:22 / 21:29
	셋물(저)	02:49 / 15:22

마세라티 뺑소니범, 징역 7년 6개월 중형 대법 “알코올농도 수치 추정 불가...음주운전 무죄”

광주 도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20대 남 녀를 차로 총격하고 도주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 1인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 6개월이 선고된 A씨의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4일 오전 3시11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 수치(추산)의 상태로 마세라티 차량을 시속 128km로 과속하다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남 녀를 들이받은 뒤 피해자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차사 등에 대해 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A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A씨의 음주량은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A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A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교 동창인 B씨(34)는 2심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벼 수확 분주 5일 오후 담양군 담양읍 들녘에서 한 농부가 콤바인으로 벼를 수확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광주시민단체 “장동혁 대표 5·18묘지 참배 반대”

호남 민심 정치적 이용·위선적 행보 등 비판

5·18민주화운동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5·18민중항쟁기동타격대동지회, (사)오월어머니집,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81개 단체는 5일 성명을 내고 장 대표의 참배 계획에 대해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온 인물이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위선적 행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장 대표는 호남 방문 목표가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가 보여준 발언과 행보는 거리가 멀다”며 “극단적 이념에 치우친 국민분열 정치 그 자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오월 영령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죄가 먼저다”고 강조했다.

광주진보연대도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 대표의 5·18민주묘지 참배를 거부한다”며 “5·18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알팍한 수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5·18은 살인마에 맞선 시민들의 기록한 희생이자 세계적으로 위대한 시민항쟁의 역사다”면서 “광주와 호남인들은 살인자를 비호하고 여전히 내란 주범을 옹호하는 자의 거짓 참배를 용인할 아량은 추호도 없다”고 규탄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광주를 찾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그의 광주 방문은 지난 8월 당대표 당선 이후 처음이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광산구, 공공 체육시설 개선사업 ‘순항’ 하남산단 안청공원 체육시설 사위장 등 추진

광산구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공 체육시설 개선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5일 광산구에 따르면 생활밀착형 체육기반 구축을 목표로,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요 체육시설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이달에는 하남산단 안청근린공원 체육시설 부대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한다. 이곳은 인조잔디 축구장 1면, 테니스장 2면, 족구장 1면을 갖췄지만 샤워 시설이 없는 탓에 주민의 개선 요청이 잇따랐던 곳이다.

이에 광산구는 시·구비 1억2000만원을 투입해 하남산단 노동자, 주민들이 체육활동 후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쌍암근린공원 축구장 시설 개선과 광주파크골프의 핵심 거점인 서봉파크골프장 진흙임로 구조개선 등은 현재 설계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준공 20년이 경과, 안전 개선이 요구돼 온 전통 무예 공간 송무정 궁도장은 올해 안전 울타리 설치, 구조물 보강 등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GIST 전임교원 12%,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양자·신약개발 등 최정상 연구 선도...9명은 ‘상위 1%’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5일 ‘2025 세계 상위 2% 연구자(Top 2% Scientists 2025)’ 명단에 GIST 소속 연구자 23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자도 9명이나 포함됐다.

‘세계 상위 2% 연구자’는 논문 수나 인용 횟수뿐 아니라 인용지수, 공동저자 기여도,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함께 반영한 ‘h-인덱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학문적 영향력을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글로벌 평가 지표로 꼽

힌다.

GIST는 2025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전임교원 194명 중 약 12%에 해당하는 23명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세계 상위 1%에 포함된 연구자는 △전기기전자컴퓨터공학과 임춘택·함병승 교수 △기계로봇공학과 안효성 교수 △생명과학과 김용철 교수 △환경·에너지공학과 김인수 교수 등 9명이며, 이중 임춘택·함병승·안효성·김용철 교수 등은 5년 연속 1%에 선정되는 탁월

한 연구 성과를 이어 왔다.

임기철 총장은 “전임교원 대비 약 12%가 세계 상위 2% 연구자에 포함된 것은 GIST의 연구 경쟁력이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지표”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지역사회와 국가,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기여하는 대학으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상습 무전취식 70대 쇠고랑

만년필 〇...광주와 전북 등 지역 곳곳을 돌며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은 70대 남성이 쇠고랑형.

광주 동부경찰이 사기 혐의로 구속한 A씨(73)는 지난 2일 오후 7시경 광주 동구 대인동 한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양주와 안주 등 70여만원 음식물을 주문한 뒤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아.

조사 결과 A씨는 광주를 비롯해 전북 등 일대를 돌며 비슷한 수법을 통해 상습 무전취식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A씨는 과거 동종전과로 60여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도 알려져, 신고를 받은 경찰은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경찰은 A씨가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누병 기간이었던 점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윤용성 기자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서

캠핑카 흠쳐 달아난 50대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흠쳐 달아난 50대가 체포됐다.

광주 북부경찰은 5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경 북구 용봉동 비엔날레 주차장에 세워진 30대 남성 B씨의 2000만원 상당 캠핑카를 흠친 혐의를 받고 있다.

25일 ‘자신의 캠핑카가 사라졌다’는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도난 차량 수배 등을 통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흠친 캠핑카를 타고 경남 김해, 사천, 함안 등 곳곳을 배회했다. 하지만 고속도로 포함 모든 CCTV관제센터를 찾아 다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전남 경남 진해 모 캠핑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캠핑카에서 살기 위해 흠쳤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B씨는 캠핑카 안에 현금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는 현금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영진 기자 looks@